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에 관한 연구

이혜경* · 정경님** · 지성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교육이란 인간의 가치관, 행동을 의도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행위로 지식과 능력을 길러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박정숙, 1995). 또한 간호교육의 목적은 학습자로 하여금 보건의료체계내의 모든 간호상황에서 대상자의 건강문제를 효과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을 습득하여 그 교육 과정을 마친 후 간호사로서 그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최영희, 1986). 따라서 간호교육과정은 간호학생들이 자신들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의 간호사로서 인식하고, 또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간호에서는 돌봄을 간호의 가장 중요한 본질로서 강조해 왔으며 간호교육에 있어서도 돌봄은 간호교육자 - 학생관계에서 핵심적인 가치(Watson, 1988)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므로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떻게 돌봄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획득하는가를 밝혀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돌봄의 학습은 교실에서 미리 결정되어진 형식적인 강의절차나 연구과정을 통해서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Carper, 1979; Noddings, 1988), 오히려 돌

봄의 능력은 돌봄을 받아 본 경험에 의해 사람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학습된다고 한다(Stein, 1986). 따라서 Noddings(1984)는 간호 교육자들은 학생이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돌봄 행위를 내면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Barnum와 Kerfoot(1995)은 돌봄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타인을 돌볼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현재까지 간호사와 환자간의 돌봄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간호학생들이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어떻게 돌봄을 받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간호학과 학생들이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받은 돌봄에 대한 경험을 알아보는 연구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또한 간호학생들이 학습과정에서 받은 돌봄의 경험은 학생 개인의 주관성이 많이 작용되고 쉽게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적 연구보다는 질적 연구에 의하여 접근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여겨져 Benner(1984, 1994)의 해석학적 현상학으로 참고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받은 돌봄 경험을 Benner의 해석학적 현

* 중앙대학교 대학원
** 중앙대학교 대학원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상학 연구방법에 의해 이해하여, 기술하여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에 위한 연구문제는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은 어떤 돌봄을 받는가'이다.

II. 문헌 고찰

간호는 전통적으로 돌봄을 간호의 중요한 본질로서 강조해 왔으며 간호학자들은 오랫동안 간호의 돌봄 현상에 대해 연구해 왔다. 이들 중 돌봄을 이론화한 대표적 간호학자인 Leininger(1984)와 Watson(1988)은 돌봄을 간호과학의 한 개념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돌봄(care)을 다른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조력(assistive), 촉진적 행위(facilitative acts), 지지(supportive)로 돌보기(caring)를 사람을 돕는 것과 관련된 직접 혹은 간접적인 양육, 기술적 활동, 과정 및 결정으로 각각 나누어 정의하였으며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돌봄을 사람의 상태, 생활습관 혹은 방식을 개선 또는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적 잠재적 요구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조력, 지지, 혹은 촉진적인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Watson(1985)은 돌봄을 간호의 핵심으로 말하고 있다.

Benner(1984)도 간호에서 돌봄의 개념은 치유 또는 치료를 포함하고, 개인적인 관심에서 시작되며, 책임과 상호존중 속에서 상호작용을 통해 일어난다고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 시행된 김애정(1990)의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를 보면 관심, 인정/따뜻함, 성의, 함께 함, 부드러움, 도움/수발, 편안함, 가르침, 위로 등 돌봄의 구성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간호교육에서는 학습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수와 임상지도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수행 능력, 교수 능력, 학생들과의 상호 관계, 교수 개인의 특성 등이 필요하다. 교수들은 교육현장에서 학습을 촉진시키거나 아니면 방해할 수 있으므로 교수는 학습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Reilly & Oermann, 1992).

Nehring(1990), Knox은 이론에 근거한 임상지식을 간호능력으로 언급하였다. 최상의 유능한 임상교수들은 간호하는 것을 즐기고, 훌륭한 역할모델이 되며, 임상기술과 판단을 명확히 보여주고, 그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확실히 책임을 지고, 간호에 있어서 지식의 폭을 입증한다.

교수능력은 학습요구를 진단하고, 학습자의 특성에 의해 교육을 계획하고, 달성될 수 있는 목표들을 계획하고 학생관리와 학습을 평가하는 영역에서 중요한 교수의 특성은 유용한 피드백(feedback)을 제공하는 능력으로, 평가과정에서 공정함을 보여주고(Bergman & Gaitskill, 1990), 학생들에게 명확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Nehring, 1990). Flagler, Loper-Powers와 Spitzer(1988)는 긍정적인 피드백(feedback)을 주는 것이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키우는데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Lowman(1985)은 교수는 학생들과 대인 관계시 온화하고 개방되고 학생 중심적이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지적 흥미를 유발하고 학생들과 긍정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교수의 기술에 따라 교육의 질이 결정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돌봄은 간호의 핵심으로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학생들에게 학습되어야 할 중요한 개념이며 이러한 돌봄의 규범화 된 가치와 태도의 학습은 교수와의 상호작용에서 돌봄을 받아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또한 간호교육과정은 학습자의 지식과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 조정되어진 중재를 포함한 일련의 과정이며 교수에 의해 돌봄이 이루어지는 간호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은 돌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Benner(1984, 1994)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방법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으로 설계되었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C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로서 본 연구의 취지를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수락한 63명의 학생들이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년분포는 연구자료수집 당시 3학년 47명, 4학년 16명이었다.

3. 자료수집과 분석

본 연구를 실시하기 전에 본 연구에 맞게 고안된 Benner(1984)의 지침을 참고로 기초서면 자료수집 질문지를 이용하여 예비조사로 전문간호사역할에 대한 명의 전문간호사와 면담을 실시하여 면담과정과 분석과정을 거치고 내용의 수정과정을 거친 다음에 본 연구에 들어갔다. 면담하기 전의 절차로 연구참여자가 속해진 기관을 찾아가 부서의 소속을 확인하여 간호부소속인 경우 간호부의 허락을 구하여 연구참여자를 만났으며, 간호부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 연구참여의사를 타진하여 협조를 구한 후 연구를 시작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1998년 4월 21일부터 2000년 9월 5일까지였으며 연구대상은 연구자가 연구참여의사를 물어 자발적인 협조와 무기명으로 실시하였으며 임상적으로 돌봄을 받은 경험을 기술하는 기초 서면자료를 수집하거나 개별 면담, 소그룹면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서면자료는 Benner(1984, 1994)가 개발한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를 위한 서면자료수집지침을 응용하여 본 연구에 맞게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서면자료는 자신이 돌봄을 받은 경험과 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여 체험한 상황과 체험의 의미를 명백하게 하고 돌봄을 받은 경험 중에서 의미 있는 것을 찾아내도록 자극하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담은 개별적 또는 3-4명의 학생들로 소집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였고, 면담 횟수는 1회에서 3회였으며, 1회 면담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20분이 소요되었다. 면담장소는 강의실, 카페, 빈 병실, 학회실 등 학생이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로 하였고 첫 번째 만남에서 면담에 대해 알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면담시 친구들과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이 인상깊게 돌봄을 받았던 경험과 돌봄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던 상황을 이야기하게 하였다. 면담시에 연구자는 각 학생들에게 하나 이상의 이야기를 하도록 격려하고 서로 열심히 들어주고 질문하며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이해하도록 하였고 소그룹 면담은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자료의 분석과 해석은 텍스트를 여러 번 읽고, 의미 있는 내용을 찾아내고 학습상황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개념을 가진 언어로 의미를 표현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3가지 상호 관련된 해석학적 전략들이 사용되었는데 패러다임 케이스(paradigm case), 주제(theme)와 전형(exemplar)들로 이러한 전략들은

이 주제의 해석과 현상의 설명을 위한 도구들로서 이용되었으며 자료의 분석과 해석의 단위는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문장과 문단으로 하였다.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은 패러다임 케이스, 주제, 전형 확인의 세 단계로 진행하였다.

Benner(1994)에 의하면 다른 예와 구별되는 실무의 특정한 생기 넘치는 예를 만났을 때 이해는 급속히 진전된다고 한다. 이러한 예가 패러다임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즉 관심 또는 문제(concern)의 양상을 나타내는 뚜렷한 실례(strong instances), 돌봄을 받은 학생의 경험(student's experiences to be cared), 혹은 교수-학생 상호작용(faculty-student interactions)에서 교수의 돌봄을 보여주는 뚜렷한 예이다. 패러다임 케이스는 서술된 이야기 안에 학생의 문제 혹은 관심(concern)의 전체성, 상호작용의 형태(form of interaction), 학습태도의 추론(reasoning)을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게 해 주는 실마리가 있기 때문에 해석에 도움이 되었다.

해석의 두 번째 단계로 주제(Theme)는 간호교육상황에서 받은 돌봄의 의미 있고 중요한 내용으로 패러다임 케이스와 전형의 텍스트들을 통합하여 읽고 다시 읽어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해석하는 과정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형은 상황의 객관적 특성이 아주 다른 맥락(context)과 상황(situation)내의 의도(intention)와 관심(concern)을 연구자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때문에 해석학적 연구의 조작적 정의에 해당한다고 한다(Benner, 1994). 각 전형은 앞의 전형에서 발견할 수 없는 뉘앙스와 질적인 특성을 보완해 주었다.

자료분석을 할 때 Benner의 해석학적 현상학 연구 방법이 상황과 의미의 해석과 이해를 중요시하므로 여러 가지 평가기준 중에서 신뢰성, 타당성, 통합성, 반복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려를 하였다(Leonard, 1989; Benner, 1994). 이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성, 타당성, 통합성과 반복가능성의 4개 범주가 평가의 기준으로 적용되었다(Leonard, 1989).

신뢰성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목표인 최상의 이해를 위해서 텍스트의 일반성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일관성을 이해하며, 연구자는 분석단계에서 참여자의 인지된 경험들을 생생하고 정확하게 서술하기 위해 後와 前의 방법, 부분과 전체 텍스트의 분석, 텍스트 대화의 분석방법을 도입하였다. 예비적인 해석을 시작하면서 면담을 기술하였으며 면담테이프를 반복적으로 청취하면서 면담을 기술하였으며 면담을 분석하기 전에 필사본을 읽

어보았다. 이러한 방법은 연구자가 애매한 표현의 질문들 또는 면담의 불완전한 내용들을 추적하고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연구자의 목표는 참여자들이 해석학적 현상학내에서 학생들이 받은 돌봄 경험을 인식함으로써 해석을 읽고 타당하게 하는 것이었다.

타당성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목표를 인식하면서 이해를 설정하였고 해석의 서술, 과학적인 목표들로서 다른 의미의 확인, 해석학적 연구들의 범주에 의해 차이점을 평가하였다. 또한 지도교수와 연구경험이 있는 석사학위 소지 간호사와 함께 텍스트를 읽고 계속적인 분석과 해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인하였고 간호학과 3학년 학생 4명에게 읽혀 내용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통합성은 해석학적 현상학의 목적은 이해이므로 첫 번째 면담에서부터 자료수집, 탐구, 분석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구자의 관점을 배제하면서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참여자의 이야기가 통합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여러 가지 책을 통해 해석학적 기술들을 살펴본 것이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었다.

반복가능성은 표본 수를 결정할 때 연구자는 동일한 참여자와 반복하여 면담할 수 있게 계획하였고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검토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의미를 더 확실하게 해 주어 참여자가 받은 돌봄 경험을 이해하는데 있어 신뢰성을 높여 주었다. 많은 텍스트는 반복, 명백성, 신뢰성을 높여주므로 부적절한 범위의 적은 텍스트보다 신빙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많은 텍스트를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IV.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으로 탐색한 결과 간호학생들은 관심, 지지, 정보제공, 인정 등을 의미 있고 중요한 돌봄의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교육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양상에 따라 개인적이고 공유된 관심을 보여준다.

다음의 보기는 학생이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받은 돌봄에 대한 사례를 설명하는 것이다.

패러다임 케이스-보기사례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 주는 것. “인생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런 말 듣게 되면 물론 기분이 좋죠. 교수님에게 좋은 감정도 생기고...

관심은 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모든 돌봄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되며 말과 행동으로 표현함이 있어야 돌봄을 받는 사람이 느낄 수 있다. 또한 관심은 서로에게 호감을 나타내고 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가서 한번 해 봐요. 원래 학생들이 더 잘한다”고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더 안 아프다.”고... 그렇게 말씀 해 주시고,... 그러면 한자들이 더 잘 맡겨요.

학생 A는 자료수집 당시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강의와 실습현장에서 여러 교수님들과 접하면서 여러 가지 도움과 돌봄을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선 관심이었다고 말했다.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 주는 것. 00교수님은 기본 좋은 따듯 참 잘 해 주세요. “인생이 좋아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교수님에게 좋은 감정도 생기고...

관심은 돌봄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돌봄이 관심으로부터 시작된다. 실수에 대한 두려움은 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호기술의 임상실습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시도해 보도록 용기를 북돋는 지지적인 분위기는 실습을 지도하는 간호사의 배려를 느끼게 한다. 또한 여러 가지 실습경험의 기회와 열의에 찬 가르침은 학생으로 하여금 실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게 한다.

‘공무원 공부는 어떻게 해야하나?’ 그런 거 물어보니까 알아터서라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학생이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태도, 정확한 정보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모색할 수 있다.

사소한 일이지만 하지만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는데 그 일을 시키시려고 일부러 저를 따로 지목해서 부르시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열심히 잘 했다고 평가해 주시고...

학생들은 자신이 한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특별히 지목해서 일을 시키는 것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자발적 활동을 증가시

키며, 어떻게 해야할 지를 알게 하는 지침이 된다.

제가 아는데 까지 설명해 드려주세요.” 하시면서 chart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산모의 진행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어요. 시간을 내서 가르쳐 주고자 노력하시는 선생님이 고마웠고 인상깊었어요. 내가 간호사가 되면 그분처럼 후배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가르쳐 주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본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임상 상황에서 학생이 실수로 당황하며 간호사나 환자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 실수에 대해 나무람 없이 격려 받은 경험은 불안, 당혹스러움, 위협, 자책의 느낌에서 벗어나 다시 시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환자에게 퇴원 약 교육을 할 때, 한가지 약이 생각나지 않아 형성수석하면서 교육을 실시했어요. 얼굴이 빨개져서 병실을 나오는 나에게 선생님께서는 “참, 잘하네요. 처음인데 잘했어요.” 하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런 칭찬을 듣으니까 너무 기분 좋았고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 분야의 실습지도자는 실제적인 임상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으며 학생으로 하여금 전체적인 진행상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적절한 피드백은 학습욕구를 불러일으키는 동기가 되며 자신감을 키우는데 유용하다.

위의 사례들은 학생들이 간호교육 학습과정에서 받은 돌봄의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다. 학생 A와 B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으나 관심을 표현해 주고 자신을 지지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보다 자유롭게 학습할 수 있었다. 돌봄을 받은 경험은 간호학을 보다 열심히 학습하게 하는 동기가 되었고 또한 간호학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간호인들을 보면서 간호학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의 패러다임 케이스에서 나타난 의미 있는 돌봄의 주제는 관심, 지지, 정보제공, 인정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육활동의 내용과 단계를 동시에 나타내 준다.

1. 관 심

학생들이 간호교육 학습과정에서 받은 돌봄으로, 의미 있고 중요한 것은 [관심]으로 기억해 줌, 웃어줌, 따뜻한 말을 건네줌, 신경 써줌, 걱정 해줌 등의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말과 행동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랐다.

1) 기억해 줌

지나가는 뭇사람으로 하신 것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날 기억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교수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강의 시간에 눈과 눈을 마주치는 일도 관심의 형태로 받아들여 졌어요. (SN#15)

관심의 시작은 시선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자신을 기억해서 수업태도에 대해 언급을 하며 눈을 맞추는 것은 단순히 시선이 머무는 것이 아닌 관심의 형태로 비쳐진다. 학생을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자신의 존재가 기억되고 시선을 맞추는 것이 학생에게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로 받아들여져 강의시간에 더욱 더 열심히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2) 웃어줌

항상 잘 웃어 주세요... 나도 나중에 간호사가 되면, 먼저 가서 끌어 당겨주고 이쪽으로 오라고 해주고, 한번씩 웃어주고... 그게 얼마나~ 진짜 딱 따뜻하게 다가온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SN#6)

미소 띤 얼굴은 호의를 표현하며 긴장을 풀어주고 가깝게 하며 친근감을 느끼게 해 준다. 많은 긴장을 유발하게 하는 낯선 실습 장소에서 실습지 간호사의 미소는 호의를 따뜻하게 표현하여 긴장을 풀어주고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믿음을 준다.

3) 따뜻한 말을 건네줌

옛날에 저 복학하기 전에 지도 교수님이... 학교에서 왔다 갔다 하면 멀리서 봐도 이름 한 번 더 불러 주시고요~~ 요즘 동생들이랑 잘 지내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시는 그 한마디가 되게 힘이 되고, 그냥 교수님이 한 번 불러 주시고 그런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SN#4)

때때로 작은 말 한마디는 관심의 표현으로, 교수-학

생 상호작용이 시작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한다. 위축된 상황에서 걸어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그 상황에 적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상황에 좀더 자신감 있게 직면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중환자실 실습 때 무의식환자에게 “안녕하셔요? 오늘은 날씨가 참 좋아요”하고 맥을 건네주는 간호사선생님을 볼 때 ‘돌봄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하는 생각... (YN#43)

무의식 환자에게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따뜻한 말을 건네는 간호사의 모습을 통하여 돌봄을 행하는 모범을 발견한다.

간단한 인사말이나 격려를 들을 때마다 돌봄을 받았다고 느낀다. “요즘 잘 지내니?” “오늘 참 멋있어 보인다.” “참 잘했다.” “요즘 무슨 일 있니?” (YN#27)

간단한 인사말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상호작용의 시간은 짧지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짧은 순간들이 쌓여서 학생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문제를 의논하기 위해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게 된다.

4) 신경 써줌

인계 시 의자를 갖다 주면서 “힘든데 앉아서 인계 들으세요.”라고 따뜻한 한마디를 할 때, 간호 업무 (charting)을 할 때 “이리 와서 보세요.”라며 챙겨 줄 때, 전신식사 후에 “식사 잘 했어요?”하고 물을 때... (YN#56)

익숙하지 않은 실습장소에서 그곳에 익숙한 사람들로부터의 조그마한 배려는 학생들에게 큰 힘을 준다. 또한 작은 한 마디 말에서 관심을 느끼며 관심이 있어야 다른 돌봄의 행위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병동의 사정과 직업 간호사들이 우선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서서 인계를 듣기도 하고 무시될 때가 많다. 그러나 실습 나온 학생으로서 배려를 받을 때 학생들은 관심과 돌봄을 경험하게 된다.

실습 중에 몹이 아팠는데(아침을 잘못 먹어 처방)

선생님들이 약을 주고 쉬게 하는 등의 행동을 취해 주셨다. 작은 일인 것 같지만 큰 도움이 되었다. (YN#29)
실습 나가서 몹이 불편한 적이 있었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하나하나 신경을 써 주시고 챙겨주셨다. (YN#37)

학생들의 어려운 상황을 인식하고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배려는 환자를 간호하는 것을 실습하러 나온 학생으로서가 아닌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로서의 역할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돌봄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

5) 걱정 해 줌

앞으로 간호사로 근무하게 될 경우 걱정도 되었습니 다. 그렇게 고연과 함께 아픈 몹으로 쉬고 있는데 오히려 걱정을 해 주시며...그 걱정에 주시는 말씀 때문에 힘을 내서 실습을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YN#10)

이해하며 걱정해 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고 실습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도와준다.

2. 지지

[지지]는 학생들이 받은 또 다른 의미 있는 주제로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줌, 이해해 줌, 용기를 북돋워 줌, 감싸줌, 기회를 줌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1)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줌

개인적으로 다가가기 힘들 것이라 생각한 교수님께 개인적 사정과 함께 부탁말씀을 드렸을 때 들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셨다. 돌봄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한 의미를 알게 되었던 것 같다. (YN#27)

공감을 하면서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것은 상대를 수용하는 돌봄의 기술이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면 학생들이 편하게 다가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된다. 어려운 사정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함께 공감하고 고민하며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잊지 않고 걱정해 주는 모습에서 진정한 돌봄의 모습을 보게 된다.

2) 이해해 줌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시간적 제약을 받았었다 (over time). 이 후에 교수님께서 이러한 이유로 제재를 했었다며 기분 나쁘게 생각지 말라고 하셨다. 내 마

음을 인정해 주시고, 해명해 주실 때 나의 감정을 교수님이 이해해 주셨다고 느꼈다. (9#51)

학생들은 교수와의 관계에서 다른 학생들 앞에서 학생을 비판적으로 평가했을 때 학생은 당황하게 되고,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학생들은 자신이 이해 받고 때로는 위로 받기를 바란다. 학생이 상처받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해명하는 것은 학생에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느끼게 한다.

3) 용기를 북돋워 줌

근육주사를 놔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은 젊은 남자 분인데 딱 보더니 “학생이지 않느냐?”고 자기 “엉덩이 못 뺏긴다.”고 그러니까 “이 학생 너무 잘 놓는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자신감 있어 가지고 딱 놔요. 그러니까 티가 많이 도움이 되더라 구요. 옆에서 바 주는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그 학생에게 많이 용기를 북돋아 주느냐 하는 그런 것 배우하는 것 같아요. (9#3)

학생들은 임상경험을 할 때 불안과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때에 용기를 북돋워 주는 말과 태도는 새롭게 용기를 내어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힘이 된다. 간호사의 한마디는 환자의 부정적인 반응으로부터 방패역할을 해 주고 할 수 있다는 용기를 내게 해 준다.

4) 감싸줌

아마 다른 선생님 같았으면 화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개가 도대체 머리에 뭐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도 했을 수도 있고~~ 일을 두 번 세 번하게 뺏겼잖아요. 그런데도 전혀 화를 안 내시고 감싸 주는 거 있잖아요. 그때가 제일 저한테 기억에 남아요. (9#6)

학생의 실수에 대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홍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으며 오히려 감싸주는 행동으로 학생은 자신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 받았다고 느낀다.

5) 기회를 줌

본래실에서 저런 학생들 내진 못하게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한 쪽에 서서 내진을 좀 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옆에서 바 좀 테니까~~ 능숙한 사람처럼 한번 내진

을 해 보라고, ... 내진을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주셨거든요. 그 때 참 기분이 좋았어요. 학생들은 한번씩 그렇게 특권이냐고 그러냐? 그런 기회를 한번씩 주면 티가 좋거든요. 기분 좋아하거든요. 내가 언제 이거 해 보겠냐? 그런 생각에... (9#6)

바쁜 임상상황과 수동적으로 실습을 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은 보다 많은 기회가 자신에게 주어지기를 바라지만 시간의 여유가 별로 없는 경우 학생에게 시켜서 확인하는 절차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기에 어려운 실습의 경험은 자신에 대한 긍지를 유지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3. 정보제공

[정보제공]이 또한 학생들이 바라는 돌봄의 의미 있는 주제로 진로 지도,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이해를 돕는 자세한 설명,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줌 등의 형태로 나타났다.

1) 진로지도

지도교수님과 상담하면서 성적에 대한 얘기, 직업,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한 정보를 얻었을 때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9#47)

학생들은 진로지도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분명히 할 간호에 대한 비전(vision)을 제시해 주기 원한다. 이러한 것들은 간호학에 대한 철학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간호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방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교수에게서 얻기를 원하며, 자신의 성적과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진지하고 성의 있는 상담은 자신이 가장 필요한 것을 받았다는 만족감을 느끼게 해 준다.

2)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처음 나간 병동에서 어리둥절하고 있을 때, 다른 간호사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상황에서 한 간호사가 인수인계시 어떻게 참여하는 지 설명해 주고 간 일은 작은 관심이지만 긴장되고 당황되는 상황에서 나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9#39)

그 병동에 대한 전반적이고 자세한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에게 그 병동의 분위기에 빨리 적응하게 하고 능

동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준다.

3) 이해를 돕는 자세한 설명

SM이나 PV하는 것도 보는 거랑 처음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sampling*하는 것 하나부터요. 그 분은 제가 하는 것(음) 보고 이걸 땀 이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집어넣을 때 잘 안 들어갔고 또 이때는 이랬기 때문에 혈관이 터졌다 그런 식으로..티게 자세히... (SN#4)

아주 단순한 기술이지만 그에 대한 세세한 설명과 시범, 그리고 실패한 원인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간호기술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정확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병원 실습하면서 선생님께서 *charting*을 하고 계실 때는 옆에 앉으라고 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이 환자는 이전 병이 있고 이전 약을 쓰고 있다고 자세하게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보고 “내가 지금 동분(관심, 사항)을 받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SN#3)

학생은 대부분의 간호기록업무시 임상교육에서 소외되게 된다. 그러나 학생을 소외시키지 않고 자리를 마련하여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기록을 보여주며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임상실습을 하는 학생의 권리를 찾아주고 동시에 학생으로서 돌봄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4)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줌

저는 등록금 문제로 한참 막막했고, 휴학은 못할 것 같은 마음에 당당 교수님을 찾았습니다. 당당 교수님은 제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셨고, 저는 등록을 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13)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내와 배려는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 주고 돌봄의 의미를 깨닫게 한다.

4. 인 정

[인정]이 또한 학생들이 받은 돌봄의 의미 있는 주제로 믿어줌, 인정해 줌, 칭찬함 등을 이야기하였다. 인정은 자신에 대한 자부심과 미래의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키워준다.

1) 믿어줌

학생 간호사인 나를 믿어 주는 구나. (SN#6) “나를 믿는 것 같다.”라는 신뢰감이 느껴졌다. (SN#31)

믿어 준다는 것은 자신감 있게 상황에 대처하고 불안을 극복하도록 돕는다.

2) 인정해 줌

무엇을 시켰는데 능숙하게 했더니, “이제 잘하네~. 정말 평온한 마음으로 간호를 열심히 했다. (SN#8)

학생들은 교육받으며 노력한 것을 평가를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 실습지도자로부터의 인정은 실습을 평온한 마음으로 마칠 수 있게 해 준다.

3) 칭찬함

“학생들이 *active*하다.” 이 말을 들으니 교수님도 기본이 좋으셨고 환자들한테도 더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었어요. (SN#9)

진심으로 하는 칭찬은 실습에 임해야 하는 행동에 방향을 제시해 주며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준다.

V. 연구 결과 및 논의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으로 탐색한 결과 간호학생들은 관심, 이해, 수용, 정보제공 등을 의미 있고 중요한 돌봄의 주제로 이야기하였다. 개별적인 면담에서 그들이 받은 돌봄의 경험은 간호교육과정에서 간호교육자들과 상호 작용하는 양상에 따라 개인적이고 공유된 관심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자신을 기억해 주고, 웃어 주고, 따뜻한 말을 건네주고, 걱정해 주는 등 [관심]을 행동과 말로 표현해 줌으로써 자신이 돌봄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생들이 교수에게 인간적이고 친숙하면서 개인적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을 원한다는 Windsor(1987)의 연구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은 학습과정에서 늘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를 행동으로 표현해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나타난 주제는 [지지]로서 학생들은 교수들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해해 주

고, 용기를 북돋워 주고, 감싸주고, 기회를 주는 등 학생의 편에서 학생을 위해 힘써 줄 때 돌봄을 받는 것으로 느꼈다고 이야기했다. O'Shea와 Parsons(1979)는 우호적이고 협조적이며 배려가 깊고 열성적인 교수의 태도는 학습효과를 증진시키고, 학생과 긍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학습자에 대한 교수단의 태도로서 학생들에 대한 사려 깊은 존중과 학생들의 이해수준에서 그들을 대해주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학생들과 대인관계를 맺는데 있어서 교수는 온화하고 개방적이고 학생 중심의 태도를 가져야 하며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Lowman, 1985)고 하였다. 연구에서 [지지]가 학생들이 받은 돌봄의 주제로 나타난 결과는 이러한 주장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이라고 하였다.

[정보제공]은 진로지도, 구체적인 오리엔테이션, 이해를 돕는 자세한 설명,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줌 등으로 학생들은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받은 돌봄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할지를 가르쳐 주고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학습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와주고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다. Wood(1987)는 학생들은 지식을 하나의 중요한 특성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식이 풍부한 임상교육 담당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전문적인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적극성을 가진 사람을 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보제공이 돌봄의 주제로 나타난 것은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학습과 생활 중심적인 면에서 학생들이 인지하는 중요한 돌봄의 내용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간호교육자들은 학생들에게 개인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네 번째 주제는 [인정]으로 교수가 믿어주고,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줌으로서 학생들은 돌봄을 받았다고 이야기했다. 이 결과는 Greer(1990)가 이야기 한 학기초에 관대하게 하는 정직한 칭찬은 학생들의 자신감을 지지하며, 긍정적인 피드백(feedback)을 주는 것이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키우는데 가장 유용하다고 하는 Flagler, Loper-Powers와 Spitzer (1988)의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받은 돌봄의 주제로 나타난 [관심], [지지], [정보제공], [인정]의 네 가지 주제는 교수들의 관점에서 볼 때 관심을 보이고 지지하고 정보를 제공하고 인정하는 교육활동의 내용과 단계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타당한 결과이며

각 세부내용 또한 각 주제를 쉽고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 간호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에 대해 Benner의 해석학적 현상학이론을 적용하여 알아보는 연구로 그 목적은 간호교육상황에서 간호학과 학생이 받은 돌봄 경험을 밝혀 간호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위한 연구 문제는 '간호학과 학생은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어떤 돌봄을 받는가'였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C대학 간호학과 3, 4학년 학생들로 총 63명이며, 1998년 4월부터 2000년 9월까지 해석학적 현상학의 연구방법에 의해 소그룹 또는 개별적인 면담과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받은 돌봄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교수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간호교육의 학습과정에서 학생들이 받은 돌봄의 의미 있고 중요한 주제는 [관심], [지지], [정보제공], [인정] 등이다. 학생들은 교수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표현해 주고 학생 중심적인 태도로 학생의 편에서 학생을 위해 힘써 주며 학습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여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를 원했다. 간호에 대해 확실한 지식을 전달해 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교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했고,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은 학생들이 간호사로서 자신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고 학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학생들이 받은 돌봄 경험은 관심과 지지, 정보제공, 인정 등으로 간호 교육활동의 내용과 단계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어 간호교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사려된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본 연구 결과를 간호교육 자료로 활용할 것을 제언한다.
2. 본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간호교육의 학습 과정에서 돌봄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연구를 제언한다.

참 고 문 헌

- 김애정 (1990). 간호사와 환자의 상호작용에서 환자가 인지하는 돌봄의 구성요소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 박정숙 (1995). 한국 4년제 대학 간호교육의 현황과 발전방안.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 17-23.
- 이병숙 (1996). 환자간호의 질 평가를 위한 돌봄 측정 도구의 개발. *간호학회지*, 26(3), 653-667.
- 최영희 (1986). *간호전문직 발전과 전망*.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Barnum, B. S., & Kerfoot, K. A. (1995). *The Nurse as Executive*. Maryland: Aspen publishers, Inc.
- Benner, P. (1984). *From novice to expert : Excellence and power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Reading, NA: Addison-Wesley.
- Benner, P. (1994). The traditional & skill of interpretive Phenomenology in studying Health, Illness, and Caring Practices.
- Benner, P.(Ed). *Interpretive Phenomenology* (99-127). Thousand Oaks, CA.
- Bergman, K., & Gaitskill, T. (1990). Faculty and student perceptions of effective clinical teachers: An extension study. *Journal of Professional Nursing*, 6(1), 33-44.
- Carper, B. A. (1979). The ethics of caring. *Advanced Nursing Science*, 1, 11-19.
- Flagler, S., Loper- Powers S., & Spitzer, A. (1988). Clinical teaching is more than evaluation alone!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7(8), 342-348.
- Greer, P. S. (1990). The one minute clinical instructor: An appl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one minute manager.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29(1), 37-38.
- Knox, J. E., & Morgan, J. (1987). Characteristics of 'best' and 'worst' clinical teachers as perceived by university nursing faculty and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2, 331-337.
- Leininger, M. (1984). Care : The essence of nursing and health, Leininger M.(Ed). *Care : The Essence of Nursing and Health* (3-15). New Jersey: Slack, Inc.
- Leonard, V. W. (1989).A Heideggerian phenomenologic perspective on the concept of the person. *Advances in Nursing Science*, 11(4), 40-55.
- Lowman, J. (1985). *Mastering the techniques of teaching*. San Francisco: Jossey Bass.
- Mayberry, W. E. (1978). Some dimensions of clinical teaching. *Journal of Dental education*, 37.
- Nehring, V. (1990). Nursing clinical teacher effectiveness inventory: A replication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of 'best' and 'worst' clinical teachers as perceived by nursing faculty and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15(8), 934-940.
- Noddings, N. (1984). *Caring: A Feminine Approach to Ethics & Moral Education*. Berkeley, Calif: University California Press.
- Nodding, N. (1988). An ethic of caring and its implications for instructional arrangements. *American Journal of Education*, 96, 215-230.
- O'Shea, H. S., & Parsons, M. K. (1979). Clinical instruction: effective and ineffective teacher behavior. *Nursing Outlook*, 27.
- Reilly, D. E., & Oermann, M. H. (1992). *Clinical teaching : Student-Teacher Interactions Within the Clinical Practice Setting*. National League for Nursing, New York.
- Stein, A. P. (1986). Teaching nurses to care. *Nursing Education*, 11, 4.
- Watson, J. (1985). *Nursing, The Philosophy And Science of Caring*. Colorado Associated University Press.
- Wood, V. (1987). The Nursing Instructor and Clinical Teaching. *International Nursing Review*, 34(5).

- Abstract -

A Study on Experiences of Students to be cared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Nursing Education

Lee, Hye Kyoung · Jung, Kyoung Nim***

*Chi, Sung Ai****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xperiences to be cared of nursing students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nursing education and provided the fundamental data of nursing education. For this study, the analytical theory of Benner's Interpretive Phenomenology was applied and the research question was "How do the nursing students to be cared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nursing education?"

All 64 junior and senior nursing students who volunteered for this study were interviewed. The data was collected by open-ended audiotaped interview or written descriptions of situations they had experienced with a caring faculty member.

All the contents of interview were recorded while interviewing with the each participants from the April 1998 to September 2000.

The conclusions, obtained from the study on experiences to be cared of nursing students, were as follows ;

1. The nursing students considered the relationship with professor as very important matter.

2. The significant and important themes of nursing student be cared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nursing education were Concern, Support, Information and Acceptance.

3. The result of this study explained the content and stage of nursing education applying 4 themes, therefore its practical use as material of nursing education was considered.

Based on this study, the practical use of this results as nursing education data and the experimental study for measuring the effect of caring in the teaching-learning process of nursing education were suggested.

Key words : Experience of Students to be cared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

**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

*** Professor of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Chung Ang Univ.